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교우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정 흥 란(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공 인 숙(순천대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교우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성별, 성적, 생활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의 남자 중학생 98명과 여자 중학생 100명, 총 198명이다.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는 문용린(1998)의 청소년용 정서지능 진단 검사로, 감정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5개 영역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81이었다. 교우관계는 전미라(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만족감, 민감성, 신뢰감, 의사소통, 이해성, 친근감, 개방성의 7개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94이었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이충국(1998)의 척도를 참고하여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개의 하위요인과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79이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 촉진 수준과 교우관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이해성, 친근감, 개방성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여학생은 진로성숙의 하위변인인 독립성과 목적성에서도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생활수준이 상인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조절 수준이 생활수준이 하인 청소년 보다 높았다. 또한 교우관계나 진로성숙에서도 생활수준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성적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지능, 교우관계, 진로성숙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적이 상인 청소년이 성적이 하인 청소년보다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 활용에서 높았으며,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민감성, 의사소통, 이해성 수준이 높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정서지능, 교우관계,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여섯째,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진로성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교우관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은 진로성숙 중 결정성에, 감정이입은 목적성에, 정서의 사고촉진은 준비성과 확신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진로성숙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서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 성적, 생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